

## '평화도시 파주'...市, '4·27 판문점선언' 관광자원화 팔 걷는다

판문점 등 DMZ일원 67년째 미등록토지 135필지 59만2천㎡ 행정구역 등록 복구  
2022년까지 6억원 들여 판문점 주변도로·관광시설 8개 기념·상징사업 계획

이종태 기자 입력 2021-01-15 09:16:23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13개월 만에 재개된 2020년 11월 4일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시범견학단이 해밀턴 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의 설명을 들으며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다. 2020.11.4 /사진공동취재단

"판문점선언'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파주시가 평화도시임을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파주시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선언'의 관광 자원화를 통해 역사적인 의의와 성과를 알리는 데 팔을 걷었다.

시는 이를 위해 정전협정 이후 67년째 미등록 토지로 남아 있던 판문점을 포함한 DMZ 일원 미등록 토지 135필지 59만 2천㎡를 지난해 말 파주시 행정구역으로 등록해 복구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6억 원을 들여 판문점 주변 도로와 관광시설에 '판문점선언'의 의미와 성과를 알리는 8개의 기념 및 상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는 판문점선언을 기념하고 개최지역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판문점선언 기념 조형물 전시', '판문점선언 기념 전시공간 조성',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이동한 통일대교에서 판문점까지의 9km의 도로를 '판문점선언길'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부터는 판문점선언의 의미와 성과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이산가족기억관 설치', '판문점선언 상징벽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 4월 27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이전 2차례 걸쳐 진행됐던 정상회담과는 달리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인 파주시 소재 판문점에서 열린 첫 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파주시는 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의 기념화 및 상징화를 통해 파주시의 새로운 평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평화도시 이미지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을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출입제한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늦어졌다"며 "판문점선언 관광 자원화 사업을 통해 역사적 의의와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